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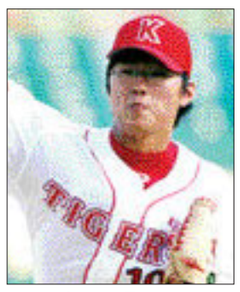
폭염 속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낙산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는 프라임그룹 2006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이틀째인 8일 독일팀과 네덜란드팀 선수들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1선발-그레이〉

〈2선발-전병두〉

〈3선발-김진우〉


〈4선발-한기주〉

〈5선발-장문석〉

"후반기 마운드 우리가 책임진다"

KIA 부상투수들 복귀
막강한 로테이션 구축
계투요원 부족 아쉬움

스포츠 단체종목은 한 사람만 잘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종목이 있다.

투수 혼자서 상대 공격수 9명을 상대하는 야구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흔히 야구를 '투수놀음' 이라고 말한다.

고교야구에서는 '특급 투수' 한명이면 그 해 전국대회를 휩쓰는 경우도 다반사다.

프로야구에서도 투수의 비중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KIA 타이거즈가 후반기 4강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도 막강해진 마운드 덕분이다.

7일 현재 KIA는 후반기 11경기에서 7승을 챙기며 후반기 순위구도에 복병으로 등장했다.

전반기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 등 각종 악재를 겪었던 KIA는 후반기 그레이-전병두-김진우-한기주-장문석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발 로테이션을 구성했다.

팀내 다승 선두(8승)인 세스 그레이싱어는 후반기 2승 1패를 기록중이다. 지난 5일 현대전서 내준 1패도 8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팀 타선의 침묵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전반기 내내 부상으로 2군을 떠돌았던 김진우도 지난 2일 두산전서 7이닝 3실점 호투로 69일만에 선발승을 따내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여기에 '좌완특급' 전병두는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다.

프로 4년차인 전병두는 시즌 초만 하더라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김진우, 강철민 등 선발진들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뒤 갑자기 달라졌다.

지난 6월 9일 한화전서 시즌 첫 선발승을 챙긴 뒤 지금까지 10경기 동안 붙박이 선발로 출전, 4승3패를 거두며 상위권의 성적표를 내놨다.

전병두는 특히 지난 6일 현대와의 원정경기서는 8이닝 3안타 무실점으로 4-0 완승을 이끌며 '좌완특급' 의 면모를 맘껏 뽐냈다.

여기에 후반기 오픈과 동시에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피터팬' 한기주의 부활투도 KIA 마운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한기주는 지난달 28일 SK전서 6이닝 6안타 탈삼진 6개로 2실점을 기록했고, 3일 두산전서도 7이닝 6안타 2실점으로 호투했다. 2경기 모두 승패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전반기 최대 약점으로 꼽히던 불안한 제구력이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한기주는 지난 6일 현대전에서 9회말 무사 1루서 구원 등판해 공 6개로 병살타와 유격수 땅볼을 유도하며 뒷문을 완벽하게 틀어 막기도 했다.

서정환 KIA 감독은 "아직 마무리 투수와 중간계투가 다소 부족하지만 선발 로테이션은 만족할만 하다" 며 "앞으로 선발진들의 부상만 없다면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 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요미우리 이승엽에 제시할 것" 日산케이스포츠 보도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이승엽(30)에게 3년간 장기계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산케이스포츠'가 8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기요타케 히데토시 요미우리 단장이 요미우리가 메이저리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아시아의 거포 이승엽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기요타케 단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승엽을 시즌 후 잔류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재차 반복했다.

요미우리는 장기 계약과 함께 이승엽의 연봉도 대폭 올려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은 올해 요미우리와 계약금 5천만엔, 연봉 1억6천만엔 등 총 2억1천만엔에 1년 단기 계약했다.

기요타케 단장은 "지금 성적으로 볼 때 연봉을 대폭 올려주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며 대폭 인상을 사실상 약속했다.

산케이스포츠는 이승엽의 몸값이 얼마까지 치솟을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말을 인용, 3년에 10억엔(한화 약 83억원) 선을 조심스레 예견했다.

이 스카우트는 산케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이후 이승엽의 맹활약에 대해서는 메이저리그도 인정하고 있지만 몸값으로는 연봉 200만 달러(2억 3천만엔)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달 야후스포츠의 칼럼니스트 제프 패산은 이승엽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을 예견하며 몸값을 3년간 2천100만달러로 추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코리아 군단' 시즌 10승 도전

LPGA 캐나다여자오픈
김미현 등 10여명 출전

시즌 9승을 올린 이후 2차례 대회에서 우승 행진을 쉬었던 LPGA 투어 '코리아 군단'이 캐나다에서 시즌 10번째 우승 사냥에 나선다.

오는 10일(이하 한국시간) 오후부터 4일 동안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런던 헌트 골프장(파72·6천611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CN캐나다여자오픈은 한국 선수끼리 우승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출전 선수 156명 가운데 상금랭킹 1~3위에 포진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카리 웹(호주),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모두 불참하는 등 상위 랭커들이 상당수 빠진 때문이다.

반면 한국 선수로는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작년 이 대회 챔피언 이미나(25·KTF)와 시즌 2승으로 상금랭킹 4위에 올라 있는 김미현(29·KFT)을 필두로 주력 멤버 10여명이 출전한다.

1주일 휴식을 취하기로 한 한희원(28·휠라코리아)과 쉬고 있는 박지은(27·나이키골프)만 뺀 코리아 군단은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 지금껏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시즌 10승 합작이 유력하다.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선수는 역시 디펜딩 챔피언 이미나.

필즈오픈 우승 이후 코닝클래식 준우승을 제외하곤 다소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이미나는 이 대회 타이틀 방어를 통해 상승세로 돌아서겠다는 복안이다.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4년 연속 컷오프라는 악연에 몸서리친 김미현의 출사표도 남다르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만 유독 운이 따르지 않았던 김미현은 한풀 꺾인 기세를 시즌 3승으로 되살리겠다는 다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 세계 랭킹
2위→7위 '미끌'

여자골프 세계랭킹 2위를 지켜오던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세계랭킹 7위로 미끄럼을 탔다.

8일 발표된 롤렉스 주간 여자골프세계랭킹에 따르면 위성미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카리 웹(호주), 폴라 크리머, 크리스티 커, 줄리 잉스터(이상 미국)에 이어 7위에 올랐다.

위성미는 롤렉스 세계랭킹이 도입된 이후 2위를 줄곧 지켜왔다.

한편 지난 주보다 1계단 오른 9위에 오른 장정(26·기업은행)이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10위권에 잔류했고 지난주 10위였던 김미현(29·KTF)은 11위로 내려 앉았다.

한희원(28·휠라코리아)은 1계단 상승한 12위, 박세리(29.CJ)는 1계단 하락한 13위에 자리 잡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